



29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2011 롯데카드 프로야구 미디어데이에서 8개 구단 감독들과 선수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삼성 류중일, 롯데 양승호, KIA 조범현, SK 김성근, 넥센 김시진, 두산 김경문, 한화 한대화, LG 박종훈 감독. /연합뉴스

반갑다! 프로야구, 개막 D-3... 8개구단 사령탑 출사표

조범현 “우승은 KIA... 준비 끝났다”

광주 홈 개막전 다승왕 노리는 윤석민, 삼성 차우찬과 선발 대결

KIA 윤석민이 삼성 차우찬과 4월2일 프로야구 개막전에서 격돌한다.

29일 서울 그랜드컨티넨탈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11 프로야구 미디어데이에서 개막전을 책임질 선발 투수들이 일부 공개됐다.

메인 개막전이 열리는 광주에서는 우완 특급 KIA 윤석민이 홈 마운드에 선다. 포크볼까지 장착한 윤석민은 스프링캠프와 시범경기에서 절정의 컨디션을 과시하며 올 시즌 다승왕을 노리고 있다.

KIA와 개막전에서 맞붙는 삼성은 차우찬을 선발카드에 내세웠다. 지난해 처음으로 10승 고지를 밟았던 차우찬은 올 시즌 삼성의 중심 투수로 성장했다.

한화는 국가대표 에이스 류현진을 앞세우고 롯데와의 개막전이 열리는 사직을 찾는다. 안방에서 '과물'을 맞이하게 된 롯데의 선발 투수는 공개되지 않았다.

'서울 라이벌전'이 전개되는 잠실에서는 203cm의 장신 니퍼트(두산)와 시속 160km의 강속구 투수 리즈(LG), 두 용병 투수의 기싸움이 예상된다.

두산 김경문 감독은 외국인 투수 더스틴 니퍼트를 선발로 선택했다. 적장 LG 박종훈 감독은 "연습경기 이후 코치진과 상의하겠다"고 밝혔지만 역시 새로운 외국인 투수 레다메스 리즈가 유력후보다.

시즌 첫 대결을 갖는 SK의 김성근 감독과 넥센 김시진 감독은 선발 낙점을 하지 못했다 밝히면서 문화구장의 주인공은 드러나

지 않았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 지난해 시즌 상위 5개 팀 사령탑은 '우승'을 한 목소리로 외쳤다.

2009년 우승을 이끌었던 KIA 조범현 감독은 "지난 2년의 경험을 통해 많은 준비를 한만큼 올 시즌 11번째 우승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KIA가 앞서서 관중을 동원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고 출사표를 던졌다.

SK의 김성근 감독은 "지난해 대만과 일본에서 열린 챔피언십대회에서 마지막 경기를 놓쳤기 때문에 올해는 아시아시리즈 우승이라는 목표를 세웠다"며 한국시리즈 우승을

공언했다. 김경문 두산 감독은 "두산의 우승이 많이 늦어져 팬들에게 죄송하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결과로 말하겠다"고 우승 의지를 밝혔다.

신임 사령탑도 우승을 목표로 내걸었다. 삼성을 새로 이끌게 된 류중일 삼성 감독은 "올해 목표는 우승, 우승이다. 지더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하는 팀이 될 것이다"고 우승의지를 강조했다.

롯데의 새 사령탑 양승호 감독도 "3년 연속 시범경기에서 우승했는데 분위기를 잘

유지해서 우승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목표를 밝혔다. 지난해 하위권팀들에게는 '도전'이 화두가 됐다.

박종훈 LG 감독은 "지난 시즌 부족한 점을 채우고 강점을 강화했다. 그라운드에서 달라진 LG 야구를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이날 3년 재계약에 합의하며 2014년까지 넥센을 지휘하게 된 김시진 감독은 "젊은 선수가 많은 만큼 실패 뒤에는 성공이 있다는 마음으로 도전하겠다"고 언급했다.

한화의 한대화 감독은 "작년보다 마운드와 수비가 안정됐다. 도전하면서 다른 팀을 귀찮게 하고 많이 이기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추신수 3연속 '20-20클럽' 스타트

美프로야구 내달 1일 개막



시범경기에서 예열을 마친 추신수(29·클리블랜드 인디언스)가 3년 연속 타율 3할과 20홈런-20도루를 향해 힘차게 정규 시즌을 시작한다.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정규 시즌이 4월1일 오전 2시55분(한국시간) 워싱턴-애틀랜타, 뉴욕 양키스-디트로이트의 경기를 시작으로 일제히 막을 올린다.

추신수는 4월2일 4시5분 홈구장 오하이오 주 클리블랜드의 프로그레시브 필드에서 시카고 화이트삭스를 상대로 개막전을 치른다. 추신수는 지난해 타율 0.300을 때리고 홈런(22개)과 도루(22개), 그리고 타점(90개)에서 모두 개인 최고기록을 갈아치우며 전성기를 보였다.

1900년 이후 클리블랜드 선수로는 2년 연속 타율 3할과 20홈런-20도루를 달성, 호타준족에 강한 어깨를 겸비한 메이저리그 특급 외야수로 자리매김했다. 덕분에 추신수는 지난해(46만1100달러)보다 무려 9배가량 오른 연봉 397만5000달러(44억2600만원)에 재계약하고 간판선수로 인정받았다.

추신수의 올해 목표는 개인 성적에서 안타 1개라도 지난해보다 나은 기록을 남기는 것이고 팀을 포스트시즌으로 이끌어 '전국구 스타'로 발돋움하는 일이다. /연합뉴스

루키들 각오 '8인 8색'

"신인왕에 도전하겠다."

29일 미디어행사에는 서재응 등 8개팀을 대표하는 주전선수와 루키들도 자리를 해 프로그래머를 앞둔 소감을 밝혔다.

KIA에서는 겁없는 신인 홍건희(사진)가 SK 외야수 정진기, 두산 투수 이현호, 삼성 투수 임현준, 롯데 투수 김명성, LG 투수 임찬규, 넥센 투수 윤지웅, 한화 투수 유창식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시범경기에서 배짱투로 주목을 받은 홍건희는 '신인왕'이라는 당당한 포부를 밝혔다.

홍건희는 "자신있는 피칭이 내 장점이다. 아직 부족한 것도 있지만 올해 목표는 신인

KIA 홍건희 "목표 신인왕... 팀 주축 되겠다"

왕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1군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야 한다. 열심히 해서 KIA의 주축 투수가 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SK 정진기와 삼성 임현준은 "주전에 진입해 선배들과 함께 우승을 일구고 싶다", "개인적으로 한국시리즈에서 꼭 던져보고 싶다"며 정상고지를 향한 꿈을 밝혔다.

두산 이현호는 "착실히 준비해 신인 선수 중 가장 잘 던지고 싶다"고 말했다.



롯데 김명성은 "팀내의 최고 타자들 앞에서 굴하지 않는 최고의 투수가 되는 게 목표다"고 각오를 다졌다.

LG 임찬규는 "LG 트윈스'를 가슴에 품고 뛰는 패기있는 신인이 되겠다"고 말했다.

넥센의 윤지웅은 "어느 팀이든 우승이 목표인데 우리도 잘할 수 있다. 우승이 목표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광주일고 출신의 '특급 신인' 한화 유창식도 "아직 보여드린 게 부족하지만 2군에서 코치님들께 잘 배우서 팀의 탈꼴찌에 도움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KIA 홈페이지 '사랑의 온도계' 이벤트

KIA 타이거즈가 개막을 맞아 홈페이지를 통해 '사랑의 온도계' 이벤트를 실시한다.

홈페이지 클릭 수만큼 이벤트 온도계 수은주가 올라가는 이벤트로 내달 1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된다. 홈페이지 유·무료 회원 모두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1아이디당 1일 11회 참여가 가능하다.

최다참여자 13명에게는 디지털 카메라(3대), 즉석 카메라(5대), 타이거즈 야구가방(5개) 등 경품이 지급된다.

한편 내달 2일부터 10일까지 홈페이지 회원 2000명을 모집한다. 가입비는 1만8000원이며 팬복과 모자가 가입선물로 주어진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그 동안 TV에서만 봐 왔던 『전주' 흥'콩나물국밥』

콩나물국밥으로는 대한민국 최고라는 명성



2011년, 가장 주목할 국밥프랜차이즈 **현대옥**

본격적인 전국 가맹점 모집 **현대옥** 검색

광주 상무점 [센트럴파크호텔 옆] 062-383-1174
광주 첨단점 [고려조 삼계탕 옆] 062-971-5844
순천법조타운점 [순천법조타운 옆] 061-726-1009
광주 수완점 오픈준비중 (4월 말 오픈)